

生成音韻論에서의 強勢現象

金 鐘 勳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韻律音韻論의 強勢現象 |
| Ⅱ. 標準生成音韻論의 強勢現象 | 1. 韻律理論의 발단 |
| 1. 強勢 설명의 원리 | 2. 韻律理論의 전개 |
| 2. 主強勢 規則 | 3. 強勢 설명의 특성 |
| 3. 交替強勢 規則 | 4. 強勢 설명의 문제점 |
| 4. 強勢 설명의 특징 | Ⅳ. 結 論 |
| 5. 強勢 설명의 문제점 | |

I. 序 論

오늘날 生成音韻論의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는 強勢에 관한 것이다. 強勢에 대한 연구는 최근 韻律音韻論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韻律音韻論에서의 強勢 연구는 強勢를 규칙으로 도입하던 종래의 標準生成音韻論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른바 單線音韻論이라 일컬어지는 Chomsky와 Halle의 標準生成音韻論에서는 強勢현상을 설명하면서 強勢 자질의 양분법 체계를 적용시키지 않고 오직 이 경우만 1, 2, 3, 4 따위의 단계적 값어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복잡한 표기규약(notational convention)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音韻單位가 單線的(linear)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차츰 벗어나, 音韻群 위에 어떤 계층적 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¹⁾이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強勢 현상은 종래의 音韻論에서와는 달리 強弱의 양분법 체계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Liberman과 Prince

師範大學 專任講師

1) 여기서 계층이라 함은 音韻階層으로서 形態音韻階層과는 구별이 되는 계층이다.

는 強勢를 내포하는 樹型으로 표시함으로써 Chomsky와 Halle의 방식과는 다른 強勢의 접근방향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같은 흐름의 強勢 연구 경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生成音韻論의 전반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Chomsky와 Halle의 標準生成音韻論과 生成音韻論 후반기에 관심을 끈 Liberman과 Prince 등의 韻律音韻論에 나타난 強勢 현상의 설명방법과 그 특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標準生成音韻論의 強勢現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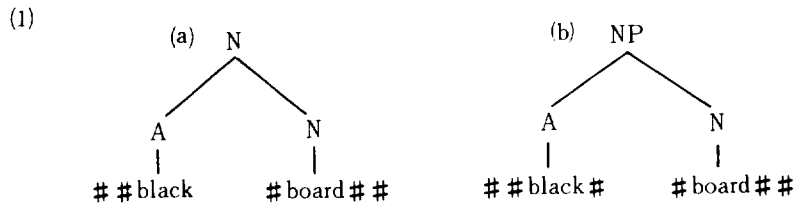
標準生成音韻論은 構造主義音韻論과는 달리 強勢 현상을 설명하면서 변형순환(transformational cycle)의 원리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強勢를 강도에 따라 몇 단계로 정하여 단어나 구 및 문장의 強勢를 고려하던 단순한 音韻的 기술방법에서 벗어나 순환규칙(cyclic rule)의 적용을 통해 強勢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변형순환의 원리와 그 원리를 이용하여 強勢를 설명하려고 한 標準音韻論의 주요한 強勢 배당규칙의 성격과 그 난점을 차례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1. 強勢 설명의 원리

生成音韻論의 새로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규칙은 규칙이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音韻規則은 적용이 가능한 최대 영역에 이르기까지 되풀이 해서 적용된다는 뜻이다. 表層構造를 괄호매김(labeled bracketing)의 연쇄라 할 때 音韻規則은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최대의 연쇄에 우선 적용되고, 그 후 제일 안에 있는 괄호가 지워지며, 그리고는 다시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최대의 연쇄에 규칙들이 적용되어 또 다시 제일 안에 있는 괄호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²⁾

예를 들어 英語의 blackboard와 black board란 단어를 살펴보자. 두 단어는 形容詞와 名詞로 연결되어 비록 순서는 똑같이 배열되었지만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Noam Chomsky and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1968). p. 15.

앞 구조를 괄호매김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a) [N#[A#black#]_A][N#board#]_N#]_N
 (b) [NP#[A#black#]_A][N#board#]_N#]_{NP}

이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바라는 強勢 모습인 blackb³oard와 bl²ack b¹oard를 도출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몇가지 規則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規則은 다음의 네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 (3) 語彙強勢規則(lexical stress rule)
 (4) 複合語強勢規則(compound stress rule)
 (5) 中核語強勢規則(nucleus stress rule)
 (6) 再調整強勢規則(readjustment stress rule)³⁾

(3)은 주어진 語彙目錄에 強勢를 부여하는 規則으로서 單音節語에서는 母音에 제일 強勢가 온다는 것이다. (4)는 複合名詞에서 強勢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제일 強勢를 가진 단어가 다시 제일 強勢를 부여하는 規則이다.⁴⁾ (5)는 한 名詞節 안에 제일 強勢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일 強勢를 가진 단어가 제일 強勢를 배당하라는 것이다. (6)은 두번째 音節에 있는 제이 強勢를 제삼 強勢로 낮추는 規則이다.

規則 (3)과 (4) 및 (4)의 規約과 規則 (6)을 적용시켜 blackb³oard는 다음과 같이 生成된다. 변형순환규약에 의해 우선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가장 최대 연쇄인 [black]_A과 [board]_N에 規則 (3), (4), (6)을 적용시킨다. 이 연쇄가 만족시키는 것은 우선 規則 (3)이므로 規則 (3)을 적용시켜 [bl¹ack]_A과 [b¹oard]_N를 얻는다. 여기서 순환규약에 의해 괄호를 없애버리면 [bl¹ack b¹oard]_N만이 남게 된다. 이것이 두번째 순환의 모습이다, 여기에 또 다시 規則 (4)를 적용시켜 black이 제일 強勢를 받고 나면 그 規則의 規約에 의해 board는 한단계 내려간 b²oard가 되어 black b²oard를 얻게 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規則 (6)을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bl¹ack b³oard를 生成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bl²ack b¹oard는 規則 (3)과 (5)에 의해 올바르게 유도된다. 먼저 規則 (3)을 적용시키면 [[bl¹ack]_A [b¹oard]_N]_{NP}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괄호를 지워버리면 [bl¹ack b¹oard]_{NP}만이 남는데 이것이 두번째 순환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모습이다. 여기에 規則 (5)를 적용시키면 bl²ack b¹oard라는 최종 형태를 生成하게 되는 것이다.

3) 이 規則은 Chomsky와 Halle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으로 2장 3절의 交替強勢規則의 強勢調整規則과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다.

4) 이 規則은 어떤 자리에 제일 強勢가 부여되면 그 연쇄의 다른 모든 強勢는 한단계씩 자동적으로 내려간다는 規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순환규칙은 하나 이상의 괄호로 둘러싸인 연쇄체의 가장 안쪽의 괄호에서부터 音韻規則이 적용되고, 적용된 후에는 괄호가 하나씩 지워지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같은 성격의 순환규칙은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는 주어진 음의 연쇄가 그 구성 요소에 있어 동일할 지라도 表層構造로 生成되어 나온 과정의 차이에 따라 그 音聲的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複合名詞와 名詞句에서처럼 연결된 순서가 같아 하더라도 表層構造는 다르며 그 같은 차이에 의해 強勢의 최종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規則이 각 순환에 적용되는 방법은 構文單位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⁵⁾ 즉 規則은 단어의 단계를 넘어 구나 문장등의 점차적으로 큰 구성요소에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⁶⁾

2. 主強勢 規則

이처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순환규칙은 動詞, 名詞, 形容詞 등의 주요 強勢를 설명할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순환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복잡한 強勢 현상은 간결한 規則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⁷⁾ 이제 動詞, 名詞, 形容詞의 強勢현상을 어떻게 規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Chomsky와 Halle는 英語의 動詞, 形容詞, 名詞의 強勢를 고려하면서 強勢 위치가 音節構造에 기반을 두어 예측이 가능하며 복잡한 強勢 현상은 規則에 의해 간결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⁸⁾ 音節構造를 형성하는 母音의 긴장과 이완의 구별이 強勢 예측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본절에서는 이점에 유의하면서 다음에 나타난 動詞의 強勢부터 점검해 나가기로 하겠다.

| (7) | I | II | III |
|-----|----------|----------|-----------|
| | astónish | maintáin | collápshe |
| | édit | eráse | tormént |
| | consider | caróuse | exháust |

I의 動詞들은 끝에서 두번째, II와 III의 動詞들은 마지막 音節에 強勢가 오고 있다. 각 그룹의 動詞들을 더욱 자세히 보면 I의 경우에는 非緊張母音(nontense vowel) 뒤에 하나의 子音으로 단어가 끝나고 있으며 II의 경우에는 緊張母音이나 二重母音(diphthong)으로, III의 경우는 두 子音의 연쇄로 단어가 끝나고 있다. I의 動詞가 나타내는 音節을 弱音節(weak syllable), II와 III

5) Sanford A. Schane,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3). p.103.

6) Alan H. Sommerstein, *Modern Phonology* (London: Edward Arnold Ltd., 1977). p. 163.

7) Larry M. Hyman,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5). p. 203.

8) Noam Chomsky, M. Halle & F. Lukoff, "On Accent and Juncture in English", *For Roman Jakobson* (The Hague: Mouton, 1956). pp. 65-80.

그룹이 나타내는 音節을 強音節(strong syllable)이라 한다면 위 動詞의 強勢 현상은, 어떤 연쇄가 弱音節로 끝났을 때는 그 앞의 音節에 強勢를 부여하고, 強音節로 끝났을 경우는 바로 그 音節에 強勢를 부여함으로써 설명이 된다.

이를 規則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V \rightarrow [1 \text{ stress}] / \left\{ \begin{array}{l} -Co[-\overset{V}{tense}]C^1_0 \\ \left[\overset{+}{tense} \right] Co \\ -C_2 \end{array} \right\} \quad (i) \quad (ii)$$

이러한 規則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므로 만약에 적용 순서에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다면 規則 (8)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離接的 順序(disjunctive ordering)라 부르기로 하자. 離接的 順序란 a와 b라는 두 規則이 있을 경우 a를 먼저 적용하고, a의 적용이 불가능 할 때에만 b의 規則을 적용하는 것이다.⁹⁾ 이것을 소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위 規則은 더욱 간단히 된다.

$$(9)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overset{V}{tense}]C^1_0$$

다음으로 名詞에 대한 強勢를 조사해 보자.

| | | |
|----------|--------|-----------|
| (10) I | II | III |
| América | aróma | veránda |
| cínema | coróna | agénda |
| análisis | hiátus | consénsus |

위 그룹의 名詞들을 검토해 보면 마지막 音節을 제외할 경우 (7)의 動詞그룹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 非緊張母音과 그 뒤에 오는 子音, 즉 弱音節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規則 (9)를 위 名詞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10)의 마지막 音節은 다음의 두 경우중의 하나이며 이 規則도 또한 離接的으로 적용이 된다.

$$(11) (a) /-[\overset{V}{tense}]C_0]_N \quad (b) / \text{---}]$$

規則 (11)의 두 환경을 앞서 살펴본 動詞의 規則인 (9)에다 더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한 強勢規

9) 이와 다른 規則 적용방식으로는 連接的 順序(conjunctive ordering)가 있는데 이 방법은 a, b 두 規則이 있을 경우 規則 a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 다시 規則 b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則을 얻게 된다.

$$(12)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C_0 ([-\overset{V}{\text{tense}}] C_0^1) / \text{---} \langle [-\overset{V}{\text{tense}}] C_0 \rangle (N)$$

規則 (12)는 A→B/X-Y/W-Z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A→B/X-Y는 XAY→XBY를 나타냄으로 위 規則은 WXAYZ→WXBYZ를 뜻하게 된다. 또한 직각괄호표기는 非連續依存關係 (discontinuous dependency)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직각괄호는 홀로 쓰이는 법이 없이 항상 짝으로만 쓰이며 괄호 안의 것을 동시에 택하던지 또는 모두 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적용 순서는 괄호안의 것을 모두 택한 경우부터 離接的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規則 (12)는 다음과 같은 네개의 離接的인 規則이 축약된 형태이다.

$$(13) \begin{aligned} (a) &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overset{V}{\text{tense}}] C_0^1 / \text{---} [-\overset{V}{\text{tense}}] C_0]_N \\ (b) &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overset{V}{\text{tense}}] C_0^1]_N \\ (c) &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C_0 [-\overset{V}{\text{tense}}] C_0^1 / \text{---}] \\ (d) & V \rightarrow [1 \text{ stress}] \text{---} C_0 / \text{---}] \end{aligned}$$

지금까지 動詞와 名詞의 強勢 배분을 보았지만 形容詞의 強勢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形容詞의 強勢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단어들을 검토해 보자.

| | | | | |
|------|---------|---------|---------|-----------|
| (14) | I | II | III | IV |
| | sólid | suprême | absúrd | diffícult |
| | frántic | sincére | corrúpt | résolúte |
| | cértain | secúre | imménse | mánifèst |

위 그룹의 形容詞들 중 I, II, III의 形容詞들은 (7)과 (10)의 I, II, III에 해당하며 IV의 形容詞는 (13) d의 적용을 받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4·I)은 規則 (13·c)에 의해, (14·II·III)은 規則 (13·d)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한편 形容詞 중에는 위 (15)의 예 이외에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 形容詞도 있다. 이들 形容詞는 名詞의 強勢規則과 유사한 強勢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 | | | |
|------|----------|-----------|-----------|
| (15) | I | II | III |
| | pérsónal | anécdótál | dialéctál |
| | mígórous | desíróus | moméntóus |
| | vígílant | defíant | repúgnant |
| | árrogant | obeísant | indígnant |

이 그룹의 形容詞를 설명하려면 앞서 본 (11·a)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환경을 추가하면 된다.

$$(16) +C_0[-\text{tense}]_V C_0]_A$$

여기서 (11·a)와 (16)을 직각괄호로 축약하면 (17)처럼 더욱 간단한 모양을 갖게 된다.

$$(17) \langle +C_0 \rangle [-\text{tense}]_V C_0 N(A)$$

이러한 形容詞의 強勢 패턴을 생각해 볼 경우 主強勢 規則은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18) V \rightarrow [1 \text{ stress}] / [X \left\{ \begin{array}{l} C_0 [-\text{tense}]_V C_0 \left[\begin{array}{l} \text{voc} \\ \text{cons} \\ \text{ant} \end{array} \right]_0 \\ C_0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i) \\ (ii) \end{array} \\ \left. \begin{array}{l} / \left\{ \begin{array}{l} + C_0 [-\text{tense}]_V C_0]_{NA} \\ [-\text{tense}]_V C_0]_N \\]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a) \\ (b) \\ (c) \end{array} \right\}$$

離接적으로 적용되는 (18)의 主強勢 規則은 나중에 Chomsky와 Halle에 의해 다소 수정된 형태로 나타나지만¹⁰⁾ 그 근본 취지는 規則 (18)의 것과 같다.

3. 交替強勢 規則

이번에는 英語 단어 *domáin*의 경우를 보자. 이 단어는 強勢가 마지막 音節에 있으며 音韻表示로 /dOmAn/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主強勢 規則 (13) 중에서 (13·d)의 적용을 받아 dOmAn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되는 단어로는 *machíne*, *caréer*, *regíme* 등이 있다.

이와 반면에 *húrricàne*, *ánecdòte*, *pédigrée* 등은 좀 다르게 強勢를 설명해야 한다. 이들도 마지막 母音은 音韻表示에서 緊張母音이라야 한다. 그러나 規則 (13·d)를 적용하면 強勢가 제일 마지막 音節에 오게 되어 잘못된 表面形을 生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마지막 音節의 強勢를 앞으로 옮기는 아래와 같은 規則이 필요해진다. 이같은 規則을 交替 強勢 規則이라 한다.

$$(19)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C_0 V C_0 \overset{1}{V} C_0]$$

이에 따라 *hurricane*은 먼저 規則 (13·d)의 적용을 받아 /hurricAn/에서 hurric¹An이 되며 規則 (19)에 의해 h²urric²An이 되는 것이다. 이 h¹urric²An은 또 올바른 表面形인 h³urric³An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부가적인 強勢調整規則을 필요로 한다.

10) Noam Chomsky and M. Halle, op. cit., p. 109.

(20)같은 단어 안에서 제일 強勢가 아닌 것은 모두 한 단계씩 強勢를 낮춘다.

지금까지 우리는 動詞, 名詞, 形容詞의 強勢 현상을 검토해 왔다. Chomsky와 Halle는 이외에도 複合動詞, 複合名詞, 複合形容詞 등의 強勢를 다루고 있으나 본고의 의도상 이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으로 돌려도 무방하다. 다만 主強勢 規則과 交替強勢 規則상의 문제점은 5절에서 거론하기로 하겠다.

4. 強勢 설명의 특성

앞서 지적한대로 標準生成音韻論은 強勢 현상을 설명하면서 변형순환의 원리를 도입하고 그 원리를 확장·적용시켜 主強勢 規則과 交替強勢 規則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強勢規則의 적용으로 우리는 몇가지 특이한 強勢 설명 방법에 접하고 있다.

첫째, 強勢資質은 標準生成音韻論의 다른 모든 資質이 +와 -로 표시되는 兩分資質(binary feature)인데 반해 1, 2, 3, 4 따위의 多元의 대립으로 표시가 된다. SPE의 다른 모든 資質은 어떤 속성의 有無에 의해 이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비해 오직 強勢의 경우만은 이론적으로 많은 자연수로 나타내는 단계적인 값어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견 強勢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종래의 音韻論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 生成音韻論 이전의 強勢에 대한 연구를 보면 특히 英語의 語強勢에 관한한 그 위치를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¹⁾ 즉 이전의 音韻論에서는 어떤 종류의 形態論의 특징에 기인한 規則성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 單語의 強勢 위치는 語彙目錄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標準生成音韻論에서는 英語에 있어서도 強勢의 배분은 語強勢를 포함하여 形式素 내부의 分節音의 配列, 構成素構造 및 일부의 單語에 대해 [1 stress], [2 stress]…… 등과 같은 區分素性的의 語彙의 정보에 바탕을 두어 파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強勢의 區分素性を 쓰는 것은 사실상 強勢의 위치를 語彙目錄에 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점을 제외하면 標準生成音韻論의 強勢 설명 양상은 종전의 音韻論의 強勢記述 방법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標準生成音韻論은 종래의 音韻論과는 달리 변형순환의 원리를 이용하여 強勢를 설명하고 있다. 즉, 괄호를 갖고 있지 않는 최대의 연쇄에 모든 規則을 적용하고 제일 안에 있는 괄호를 지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強勢가 설명이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強勢規則이 적용되면 주어진 音의 구성요소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表層構造로 生成되어 나온 차이에 따라 그 音聲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11) 예를 들어 Jones(1950)는 強勢란 근본적으로 話者의 주관적인 행위이며 ……(중략) 聽者로서는 어디에 強勢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Jones, D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Cambridge: Heffer, 1950), pp. 134-135. 참조할 것.

標準生成音韻論의 또다른 특징은 強勢規則의 規則順이 離接的으로 적용이 된다는 데 있다. 이 조건에 따라 최초의 規則에 적용 대상이 되는 단어는 결코 다음에 오는 規則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최초의 規則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단어는 두번째 規則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바꿔 말해서 두 規則이 있을 때, 처음 規則을 먼저 적용하고 그 規則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두번째 規則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標準生成音韻論은 強勢資質의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 다른 가치들과 連合的(syntagmatic) 관계에 있을 때만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제이 強勢나 제삼 強勢는 제일 強勢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單音節인 John이 만약 John³으로 표시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뜻이 없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일 強勢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이 強勢나 제삼 強勢가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같은 強勢의 連合的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른 強勢值의 각각에 대해 그 音聲의 대응을 규정할 수가 없다. 즉 多項의 체계를 지니는 強勢의 본질 때문에 그 變異의 명확한 범위가 없어 音聲의 대응을 나타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兩分的 音聲資質은 그 變異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 개개의 指定値는 그것과 대립하는 指定値와 綜合的(paradigmatic)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며 각각의 音聲의 대응도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가 있다.

5. 強勢 설명의 문제점

強勢를 兩分法으로 다루지 않고 多元的인 가치체계로 본 SPE의 強勢 설명 방법에는 이처럼 몇가지 특성을 지님으로써 音韻現象을 체계적으로 規則化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英語의 強勢배분이 종래에 고려되어온 것보다 엄청나게 큰 規則性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을 SPE가 명백히 한 것은 평가받을만 한 일이다.

그러나 그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SPE의 強勢 記述樣式과 그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規則 외적인 문제점 외에 規則 자체내의 문제점도 포함이 된다.

먼저 SPE는 다른 資質은 兩分法으로 처리하면서도 強勢資質만을 단계적인 대립으로 취급한데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SPE에서는 단계적인 資質을 強勢規則에 한정시킴으로써 마치 強勢資質이 兩分法의 예외인 양 취급을 하고 있다. 強勢資質만을 다루면서 단계적 대립을 인정하게 되면 資質 설명에 있어 일반적 기준을 잃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임의적 기준을 내세워 音韻現象을 설명하게 되는 모순을 범할 우려가 있다. 強勢資質이건 그밖의 資質이건 하나의 기준을 세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변형주기를 이용한 強勢 설명도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난점을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強勢形態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Chomsky와 Halle는 My friend can't help

12) Mark Liberman & Alan Prince.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1977. p. 262.

being shocked at anyone who would fail to consider his sad plight란 문장이 주어진다면 이때 sad plight는 81과 같은 強勢形이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sad의 強勢는 8차 強勢이며 plight의 強勢는 1차 強勢라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 중에서 sad가 가장 약한 強勢를 받는데 대해 plight는 가장 강한 強勢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어조로 앞 문장을 발음했을 때 sad plight가 과연 81의 強勢形으로 발음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強勢形態는 더욱 더 많은 숫자로 내려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強勢 체계를 보일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強勢形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強勢 교육에 임할 경우에도 標準音韻論의 접근방법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교육현장에서는 어떤 單語의 어느 곳에 強勢를 붙이는 지에 관심이 있는 반면 Chomsky와 Halle의 SPE에서는 일단 母國語話者が 單語의 어떤 부분에 強勢가 있는지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規則으로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Chomsky와 Halle가 強勢 현상을 설명하면서 고려한 規則 자체내의 문제점이 아니라 規則 외부에 수반되는 난점에 관련된 것이다. 規則 외부의 문제점에 못지않게 規則 내부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複合語強勢規則과 中核語強勢規則에 나타난 난점을 보기로 하자. 다음의 세 單語의 強勢形을 보면

$$(21) \quad \overset{3}{m} \overset{1}{y} \overset{3}{o} \overset{1}{u} \overset{3}{h} \overset{1}{i} \overset{3}{m} \overset{1}{s} \overset{3}{e} \overset{1}{l} \overset{3}{f}$$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單語들은 black board와는 정반대의 強勢形을 가지고 있다. 이 單語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強勢가 부여된 것인지를 알려면 아래와 같은 表層構造를 고려해야 한다.

$$(22) \quad [N[NP[PMY]P[N \text{ self}]_N]NP]_N$$

이 表層構造에 변형순환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23)과 같은 유도과정을 거치게 된다.

$$(23) \quad N[PMY]P[N \text{ self}]_N$$

| | | |
|------------|----------|-------|
| <u>1</u> | <u>1</u> | 規則(3) |
| <u>1</u> | <u>2</u> | 規則(4) |
| * <u>1</u> | <u>3</u> | 規則(6) |

이리하여 Chomsky와 Halle식으로 強勢形을 처리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非文法的인 연쇄를 생성하게 된다. 이것은 規則 자체의 결함이거나 規則 적용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表層

構造의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Chomsky와 Halle가 설정한 主強勢 規則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다. 다음 (24)의 名詞들을 살펴보자.

(24) $\overset{1}{A}\overset{3}{mazon}$ $o\overset{3}{celot}$
 $\overset{1}{d}\overset{3}{affodil}$ $\overset{1}{t}o\overset{3}{mahawk}$

이 單語들은 그 안에 形態素境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主強勢 規則 (18·a)를 적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이완모음이 들어있는 音節로 끝나고 있으며 그 앞의 音節은 弱音節이므로 主強勢 規則 (18·b)가 적용하여 $\overset{1}{A}\overset{3}{mazon}$, $\overset{1}{d}\overset{3}{affodil}$ 이라는 잘못된 表面形을 생성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우리는 主強勢 規則을 보완하여 끝 音節에 強勢를 부여하고 交替強勢 規則에 의해 이 強勢를 두 音節 앞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의 規則을 主強勢 規則의 보완 規則으로 삼으려 한다.

(25)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C_0]_N$

이에 따라 Amazon은 $\overset{1}{h}\overset{3}{urricane}$ 과 똑같은 식으로 설명이 되며 올바른 表面形인 $\overset{1}{A}\overset{3}{mazon}$ 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Ross는 交替強勢 規則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 그에 의하면 形態素境界를 가지고 있는 單語를 고려하여 語彙目錄 속에 規則資質을 다는 방법으로 交替強勢 規則은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交替強勢 規則이 아래와 같은 모습인

(26) $V \rightarrow [1 \text{ stress}] / \text{---} C_0 (=) C_0 (VC_0) \overset{1}{VC_0} \#$

로 나타난다고 제안한다면 piccalilli와 같은 單語는 [+交替強勢 規則], vermicelli는 [-交替強勢 規則]의 規則資質을 語彙目錄 속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Ⅲ. 韻律音韻論의 強勢現象

앞서 본 바처럼 標準生成音韻論은 強勢規則의 형성과 적용 및 순서에 관심을 둠으로써 音韻構造와 音聲構造를 관련시키는 規則의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사항은 生成音韻論을 두 단계로 구분할 경우 대부분 초기의 生成音韻論에서 취급하던 관심사이다.

13) John R. Ross, "A Reanalysis of English Word Stress".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Michael K. Brame (ed.)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2), p. 237.

이와 반면 후기의 生成音韻論은 音韻表示構造 자체로 그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초기의 生成音韻論의 기본 가정이 후기의 生成音韻論에 이르러 다른 각도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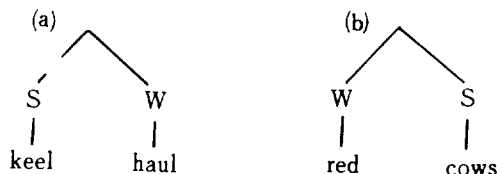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초기의 生成音韻論의 기본적 가정의 하나는 音韻單位들이 單線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標準音韻論은 분절음의 單線的인 배열을 중시하면서 말단의 분절음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분절음의 계층관계는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부터는 音韻單位가 單線的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벗어나 音韻群 위에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낱말의 분절음의 構造를 단순히 말단 單位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지 않고 상위 單位에까지 관련시키는 분석방법이 대두한 것이다. 흔히 複線音韻論이라 불리는 이론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 바 여기서는 이 계열에 속하는 韻律音韻論에 있어서의 強勢現象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韻律理論의 발단

Fudge에 의하면 언어표현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계층적 조직이 있다.¹⁴⁾ 하나는 形態構文階層(morpho-syntactic hierarchy)으로서 분절음이 形態素로, 形態素가 單語로 單語가 句로 조직화되는 계층이다. 다른 하나는 音韻階層(phonological hierarchy)으로서 분절음이 音節로, 音節이 音步로, 音步가 單語로 그룹화되는 계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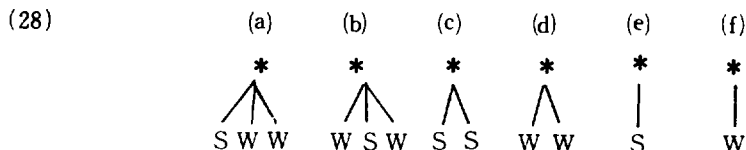
韻律音韻論은 바로 이 두번째 계층인 音韻階層의 성격과 그 내부조직을 연구하기 위한 분야이다. 1975년 Liberman에 의해 시도된 이 이론은 強勢를 相對的 資質로 규정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Liberman은 強勢를 어떤 音節에 어느 정도의 強勢가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 音節이 다른 音節보다 더 강하다는 식의 相關의 개념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強勢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相對的인 것으로 보려는 노력은 오래전 Jespersen에 의해서도 시도된 바 있으나 Liberman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強勢理論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Liberman은 強勢表示를 樹型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強(strong)과 弱(weak)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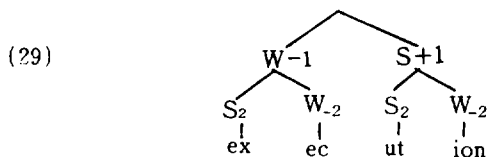
14) E. C. Fudge, "Syllables", *Journal of Linguistics* 5, 1969. pp. 193-320.

15) Mark Liberman & Alan Prince. op. cit., p. 256.

여기서 S와 W의 표시는 고정된 음성해석을 가진 音韻資質이 아니다. 이 樹型은 S라는 node가 W라는 node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우세하거나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S와 W는 항상 서로 관련되어 나타나야지 S만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W만이 나타나서는 안되며 SS나 WW와 같은 構造는 이 이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構造는 韻律理論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¹⁶⁾



이러한 強과 弱의 相對的 대립은 二分法만을 허용하므로 多音節語는 옆으로 나무가지가 뻗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execution은 다음과 같은 樹型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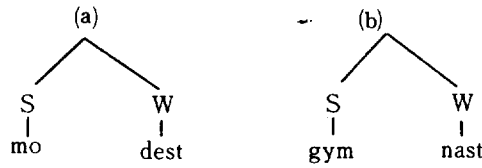
위 樹型에서 主強勢는 S의 node만을 타고 내려온 音節인 ut에 떨어지며 W의 node만을 가진 音節 ec는 弱強勢이고 S와 W의 node를 혼유한 音節인 ex와 ion에는 副次強勢가 붙고 있다. 이를 알기 쉽게 수치를 부여해서 설명해 보자. 위 예에서 맨윗줄 S에 +1, W에 -1을 부여하고 아랫줄의 S에 +2, W에 -2의 수치를 배당하여 각 音節의 S와 W의 합계를 계산하면 ut는 +3이 되어 主強勢가 되고 ex는 +1이 되어 두번째 強勢가 되며 ion은 -1이 되어 세번째 強勢가 되며 ec는 -3이 되어 弱強勢가 된다.¹⁷⁾

이러한 強勢 규정은 종래에 強勢의 次度를 숫자로 표시하던 SPE의 방식과는 달리 한 音節이 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S와 W node의 합산으로 자연히 유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強勢란 분절음 연쇄가 가지는 계층적 구조에 있어서 자매관계에 있는 node간의 二項的 대립관계¹⁸⁾로 파악됨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Liberman과 Prince는 S와 W로 표시되는 兩分식 樹型만을 갖고서는 英語單語에 있어 우리가 찾는 필요한 모든 相對性的의 구분을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módést와 gýmnást란 두 單語를 보자. 이들 單語는 첫 音節에 제일 強勢가 있다. Liberman과 Prince의 접근에 따르면 이것은 첫 音節은 S로 다음 音節은 W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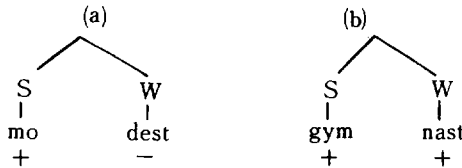
16) Harry van der Hulst & N. Smith", An Overview of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Holland: Foris, 1982), p. 31.
 17) Kim, C. W. "The Rise and Rite of Non-linear Phonology",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ed)(Seoul: Hanshin Publishing Co. 1982), pp. 101-102.
 18) node간의 대립관계란 強勢가 통합적으로 규정되는 相對的 관계임을 의미한다.

(30)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單語에 할당되는 초분절구조는 동일하게 표시된다. 그러나 두 單語의 強勢形은 똑같지 않다. 왜냐하면 modest의 둘째 音節은 強勢가 없는 반면에 gymnast의 둘째 音節은 제이 強勢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Liberman과 Prince는 兩分的 樹型외에 [±stress] 資質이 살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單語에 대한 올바른 표시는 다음의 樹型을 가지게 된다.

(31)



이같은 兩分的 樹型的 SW와 ±stress資質 사이에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간의 관련성은 다음의 네가지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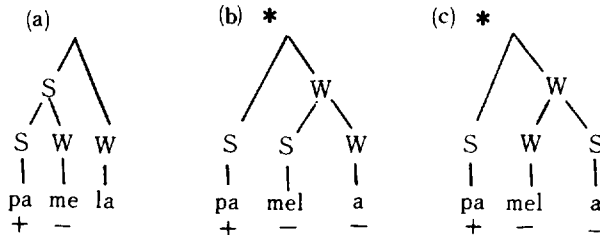
(32) S S W W
+ -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S와 [-stress]와의 결합은 배제된다.

(33) If a vowel is s, then it is [+stress].

위 원칙은 만약 母音이 -stress라면 그것은 W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원칙은 다음의 그릇된 형태를 허용치 않는 기능을 하는 韻律構造상의 적형조건으로 간주될 만하다. 이 조건에 따라 Pamela는 (34·a)만이 올바른 것으로 처리된다.¹⁹⁾

(34)



19) Mark Liberman & Alan Prince. op. cit., p. 265.

이처럼 韻律音韻論은 強勢를 S와 W의 兩分世界로 파악하고 있으며 계층적 구조와 더불어 相對的 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것은 多元的 표시로 規約과 規則이 강조되던 SPE의 強勢 설명 방법과는 판이한 것이다.

2. 韻律理論의 전개

Liberman과 Prince에 의해 연구된 韻律音韻論은 Kiparsky(1979)와 Selkirk(1980)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Kiparsky(1977)의 이론을²⁰⁾ 중심으로 韻律理論에 있어서의 強勢現象을 고찰하려고 한다. Kiparsky(1977) 이론은 그보다 앞서 발표된 1975년의 자신의 이론²¹⁾에 Liberman과 Prince 등의 이론을 수용·대폭 수정을 가한 것이므로 우선 1975년의 이론을 잠시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가 된다.

Kiparsky(1975)는 英語의 韻律體系에 대하여 네개의 주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네개의 주요 성분이란 基本形態部(basic patterns), 韻律規則(metrical rules), 韻律緊張指數(metrical tension index), 律格規則(prosodic rules)을 뜻하고 있다.

첫째 基本形態部는 적은 수의 音韻單位의 배열로 이루어 지고 있다. 英語에서 이 單位는 強勢·非強勢音節이다. 이 성분은 標準音韻論의 基底形에 해당된다.

둘째 韻律規則은 基本形態部에 적용되어 導出韻律型을 生成한다. 生成된 導出型도 強勢·非強勢音節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셋째 韻律緊張指數는 추상적인 韻律型과 실제 리듬 사이의 불일치로 생겨나는 緊張에 대한 相對的인 수치를 말한다. 이 指數는 詩行들간의 문체적인 계층이나 詩가 쓰여진 시기와 유형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네째 律格規則은 韻律規則에 의해 生成된 導出型을 表面에다 연관시킬 때 필요한 規則이다. 이 規則은 導出된 韻律型을 주어진 詩型和 대응시키기 위해 詩行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론은 1977년에 들어와 점차 수정되고 있다. 물론 規則의 근본 취지는 변함이 없으나 용어사용 등에 다소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77년 이론에 따르면 韻律規則 대신 語彙強勢(lexical stress)란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詩行의 緊張度는 複雜度(metrical complexity)란 말로 바뀌고 있다.

아울러 1977년의 Kiparsky 이론은 1975년의 이론에서 Halle와 Keyser의 兩分強勢를 비판하여 多段階強勢를 인정하던 것을 다시 強弱의 두단계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연쇄의 文法的 構造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1975년의 이론을 보완시키고 있다. 이같은 強勢 설명의 진전은 Kiparsky(1977)가 Liberman과 Prince의 제안을 받아들인데서 비롯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Kipar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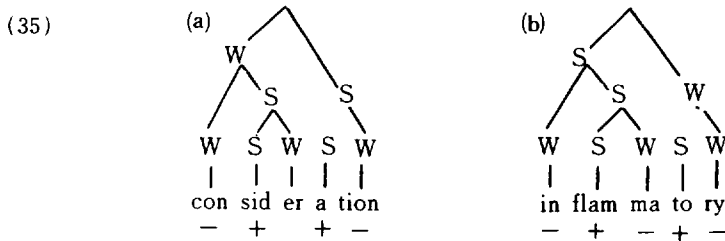
20) Paul Kiparsky, "The Rhythmic Structure of English Verse", *Linguistic Inquiry* 8, 1977, pp. 189-247.

21) Paul Kiparsky, "Stress, Syntax and Meter", *Language* 51, 1975, pp. 576-616.

(1977)가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Kiparsky(1975)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어떻게 기술하려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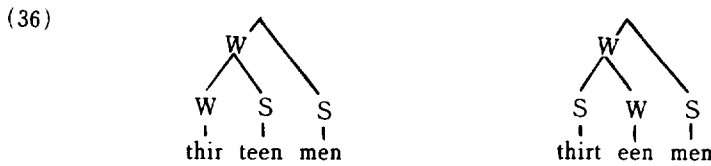
먼저 副次強勢를 종전과 다르게 설명하려 한다. Kiparsky(1975)에서는 maintain이나 comment 등의 副次強勢를 무시하기 위해 律格規則이 필요한 바 있다. 이 律格規則으로 인해 副次強勢를 가진 音節들이 약세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強勢를 相關적으로 파악하는 Kiparsky(1977)에서는 韻律規則은 불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maintain과 comment는 각각 $W \wedge S$ 과 $S \wedge W$ 와 같은 強勢構造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律格規則이 불필요하다는 보다 강한 주장은 consideration과 inflammatory와 같은 單語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의 경우 副次強勢는 主強勢로부터 좌우를 두고 둘째 音節에 오고 있다. 따라서 이 單語들은 다음과 같은 構造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主強勢는 W가 하나도 없는 S만을 타고 내려온 곳에 떨어지고 있다. 즉 위 樹型에서는 -a와 -flam-에 主強勢가 있다. 이러한 사실의 포착은 Kiparsky(1975)에서와 같은 律格規則을 두는 경우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律格規則은 主強勢 이외의 모든 副次強勢를 약세로 바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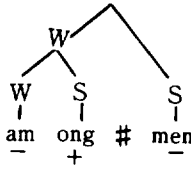
다음으로 리듬규칙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자. 리듬규칙이란 thirteen men의 경우처럼 S와 S가 인접하게 될때 리듬을 고려하여 thirteen men처럼 強勢의 위치를 옮겨놓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規則化시킬 수 있다.



이제 위와 같은 構造를 기반으로 among men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 Kiparsky(1977)의 장점이 드러나게 된다.

Kiparsky(1975)에서는 ##among# men##에서 보듯 SWS의 위치에 온 것을 그의 律格規則에 의해 설명하려 할 것이다. 律格規則으로 among의 強勢는 모두 무시되어 W로 환원되고 따라서 among의 強勢音節 -mong이 약세의 운율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Kiparsky(1977)에서는 among # men에 대해 다음과 같은 強勢構造를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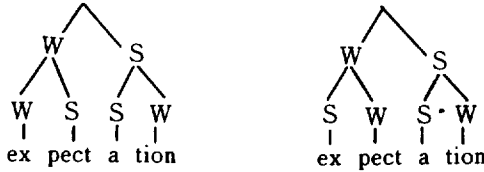
(37)



이것은 다음과 같은 리듬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두번째 S를 맨처음의 W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W가 [+stress]의 資質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among의 경우처럼 W가 [-stress]의 資質을 가진 경우에는 S가 W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強勢의 轉倒現象은 한 어휘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動詞 expect는 제이 音節에 強勢가 있어 ^Wexpect로 發音된다. 그러나 그 動詞가 名詞가 되어 접미사 -ation이 붙으면 아래와 같이 強勢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

(38)



SPE에서는 이러한 強勢의 뒤바뀐 현상을 순환규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表記規約을 사용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나 韻律音韻論에서는 대부분 그런 規約들이 불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韻律理論의 강점이 있는 것이다.

3. 強勢 설명의 특성

전술한 韻律音韻論의 強勢설명은 標準音韻論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양 이론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韻律音韻論이 주장하는 몇가지 중요한 점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첫째 標準理論에서는 強勢의 次度を 1, 2, 3, 4 등의 숫자로 표기해야 함으로써 오직 強勢資質에만 多元的 資質을 인정하였는데 비해 韻律理論에서는 強勢現象도 兩分法의 체계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韻律理論에 있어서는 標準理論에서와는 달리 強勢를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단계적 대립으로 보지않고 弱強의 두 단계만 인정하는 兩分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標準理論의 다른 資質들은 여전히 兩分의 체계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基底形의 세계가 무한히 작은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 단계적 대립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有無의 대립이 존재하는 心理的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強勢의 경우만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이론적으로 많은 숫자로 나타내는 多項的 값어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SPE의 어떤 곳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이 거론된 바 없으며 이같은 단계적 숫자표시로 強勢가 마치 兩分法의 예외인 양 취급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Lieberman과 Prince등의 연구 이후로 우리는 모든 資質을 有無의 兩分對立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韻律音韻論에서의 強勢의 強弱은 相對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相對的 성격은 韻律分節音의 資質이 아니라 성분구조의 資質로 표시가 되며 연쇄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상호관계에 따라 相關的으로 포착이 된다.

셋째 韻律理論에서는 횡적인 연쇄만이 아니라 종적인 조직도 다르게 된다. 종래의 音韻論에서는 音節과 境界로 이루어진 횡적인 연쇄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韻律理論에서는 階層과 성분구조의 개념을 도입하여 強勢의 단순한 횡적 나열이 아닌 종적인 樹型을 표시하고 있다.

네째 韻律理論은 相對性을 정의하는 規則의 관점에서 局部的(local)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²²⁾ 즉 強勢를 결정짓는 작업은 예전처럼 全局的(global)인 작업이 아니라 強弱의 관련속에 정의되는 局部的인 작업이 된다.

다섯째 이러한 音韻論은 強弱의 對立이 音節面에서만 單線的으로 규정되는 單線音節이 아니라 音節群인 音步面에서도, 또 音步群인 單語面에서 계층적으로 규정되는 複線音韻論이다. 다시 말해서 音韻構造상 分音節→音節→音步→單語로 확장되는 계층적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韻律理論에서는 標準理論의 변수, 괄호표기, 規則順, 순환규칙등의 복잡한 表記規約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分節音의 資質을 명세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나무구조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4. 強勢 설명의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는 強勢의 兩分法과 계층구조는 韻律理論의 중요한 특징임을 본 바 있다. 이 두 개념은 거의 모든 韻律音韻論者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보편화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³⁾ 그러나 이에 대해 Schane은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Lieberman과 Prince에 의해 제안된 樹型에서는 각 node는 두갈래 표시인 S와 W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樹型은 Canada를 예로 들면 (39·a)로 나타나야 하며 (39·b)이 되어서는 안 된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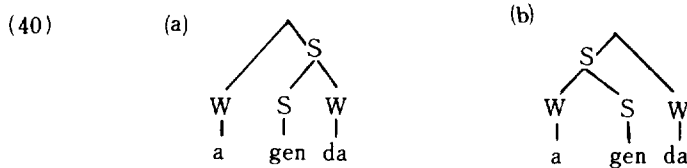


22) Mark Lieberman & Alan Prince, op. cit., p. 263.

23) Shosuke Haraguchi, "On Schane's Linear Theory of English Stress and Rhythm",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Harry van der Hulst & Norval Smith (eds.) (Dordrecht-Holland and Foris, 1982), p. 83.

그러나 Schane에 의하면 英語의 基本音步는 SWW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音節은 音步들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구조적 단위로서 音步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39·b)처럼 세갈래로 나타낸 樹型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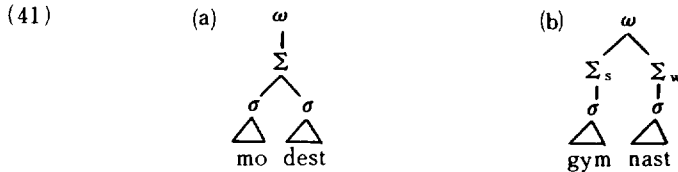
아울러 Schane은 엄격히 兩分法을 고집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기술상의 난점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genda란 單語를 예로 들어 보자. 이 單語는 아래와 같은 두 해석이 있을 수 있다.



兩分法을 주장하는 Liberman과 Prince는 두 표시중 전자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왜 전자가 후자대신 선정되어야 하는지는 완전히 자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한편 Selkirk는 Liberman과 Prince가 설정한 [±stress] 資質이 불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²⁶⁾

그들이 分節音의 資質로 [±stress]를 설정했던 것은 S와 W로 표시된 양갈래 樹型으로서만은 英語單語내의 모든 가능한 구분을 포착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Selkirk는 韻律構造의 하위단위인 韻律範疇(prosodic categories)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英語의 語強勢의 경우 韻律範疇는 syllable(σ), stress foot(Σ), prosodic word(ω)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範疇를 이용하여 modest와 gymnast를 樹型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



VI. 結 論

앞서 본대로 標準生成音韻論은 변형순환의 원리로 英語의 強勢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이상의 괄호로 둘러싸인 연쇄체의 가장 안쪽의 괄호로부터 순환적 韻律規則이 적용되며, 그 후 괄호는 하나씩 지워지는 방법으로 기술이 된다. 이 원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複合語는 물론 動詞,

24) Sanford A. Schane, "The Rhythmic Nature of English Word Accentuation", *Language* 55, 1979, pp. 595-596.

25) *Ibid.*, p. 596.

26) Elisabeth O. Selkirk,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1, 1980, p. 303.

名詞, 形容詞 등의 주요한 強勢를 설명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Chomsky와 Halle도 主強勢規則과 交替強勢規則을 제안하면서 動詞, 名詞, 形容詞의 強勢를 거론하고 있다.

이같은 원리밑에 強勢를 설명하는 標準生成音韻論은 종래의 音韻論과는 다른 몇가지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強勢資質은 兩分的이 아니라 多元的으로 표시가 된다. 아울러 強勢規則은 連接的이 아니라 離接的으로 적용이 되며 資質의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 統合的인 관계가 아닌 連合的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존재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標準生成音韻論은 強勢現象을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兩分法과 변형순환의 원리에 따른 規則외적인 문제점과 規則자체의 문제점이 포함된다. 이미 Ross에 의해서도 標準音韻論의 強勢規則은 수정이 불가피함이 지적된 바 있다.

規則으로 설명되던 초기 生成音韻論의 強勢現象은 후기 生成音韻論에 이르러 전혀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Liberman과 Prince가 시도한 韻律音韻論에서는 強勢現象도 強과 弱의 兩分 체계로 기술할 수 있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의 韻律理論에서는 強勢의 強弱은 相對的으로 파악이 된다. 계층적 조직을 중시하면서 強勢는 연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의 상호관계에 의해 相關的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韻律理論에서는 횡적인 연쇄이외에 종적인 나무를 다루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 強勢를 결정짓는 일은 이전처럼 全局的이 아니라 局部的인 작업이 된다.

이같은 성격으로 인해 韻律音韻論에서는 標準生成音韻論에서 중요시된 변수, 괄호표기, 離接的規則順, 순환규칙등이 불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強勢를 설명하면서 설정했던 복잡한 表記規約이 관여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標準音韻論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韻律理論으로서의 강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韻律理論은 계속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Liberman과 Prince 이후로 Kiparsky(1977), Halle와 Vergnund(1978), Schane(1979), Selkirk(1980), Hayes(1981) 등이 強勢의 韻律的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다.

Summary

English Stress in Generative Phonology

Kim Jong-h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ory of stress in generative phonology including the standard generative theory of Chomsky and Halle and the metrical theory of Liberman and others. The assignmen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English stress are studied within the two phases of generative phonology.

The standard theory assumes the idea of the cyclic assignment of primary stress known as the principle of the transformational cycle. The basic principle of the transformational cycle is that the stress placement rule operates on a "word within a word" before applying in a second cycle to the complex word as a whole. By use of this cycle, the complicated stress patterns of English can be adequately accounted for by making a simple rule of stress.

The standard theory has some special properties. First, the stress feature is not binary but n-ary (multivalued feature). Second, stress rules often make use of the convention of disjunctive ordering. Third, nonprimary values of the stress feature are defined syntagmatically.

On the other hand in the metrical theory the stress feature is binary. This theory represents the relative prominence of stress graphically, by annotating the nodes of the syntactic tree with the symbols w (for "weak") and s (for "strong"). That is, this theory defines relative prominence as a feature of constituent structure rather than of phonological segments. The rules defining relative prominence are locally conditioned.

Therefore, cyclic rules, complex conventions, various variables and other devices are not required in the metrical theory. Here is thus a significant advantage to the representation of relative stress as a structural rather than a segmental feature.